

고흥군 전국 첫 벼 2기작 노지재배 성공

동강면 죽암농장서 벼베기...1기작 비해 수확량 5.7% 감소



지난 19일 고흥군 동강면 죽암농장 2기작 노지재배 시범단지에서 전국 최초로 2기작 벼베기가 진행되고 있다. <고흥군 제공>

1년에 같은 논에서 벼농사를 두 번 짓는 벼 2기작(二期作) 노지재배가 고흥에서 성공했다.

고흥군 동강면에 자리한 죽암농장(대표 김중욱)은 지난 19일 2기작 노지재배 시범단지에서 전국 최초로 2기작 벼베기 행사를 가졌다.

이곳은 지난 3월 25일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극조생 품종인 '기라라 397호' 모내기기를 한데 이어 7월 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1기작으로 수확한 뒤 다시 2기작으로 극생종 '조평벼'를 7월 28일 모내기한 곳이다. 2기작 벼는 1만3200㎡에서 재배했으며 모내기한 지 115일 만인 이날 수확했다.

1기작 '기라라 397호'의 조곡량은 10a당 530kg이며, 2기작 '조평벼'는 500kg으로 조사됐다.

2기작은 벼이삭이 나온 출수(9월 20일) 후 급격한 일교차로 미등숙이 발생해 1기작 수확량 대비 5.7% 감소했다.

고흥군과 죽암농장은 내년 육묘일과 모내기를 열흘 정도 앞당겨 시행하면 수확량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시범재배는 기후 온난화로 벼 재배 가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2기작 벼 재배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체작목을 선정 보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죽암농장 관계자는 "내년에는 벼 2기작 재배 면적을 7ha로 늘릴 계획"이라며 "앞으로 2기작 농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농지 이용률을 높이고 생산량도 늘어 벼농사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죽암농장은 지난 10월 열린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고소득 쌀생산 분야 '전라남도 농업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기작은 1년에 한논에서 벼 등 같은 작물을 두 번 수확하고, 2모작은 1년에 다른 작물을 두 차례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보성군 조성남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건물 외벽에 동심기득한 벽화를 그리고 있다.

전교생 30명 보성 조성 남초등학교 벽화 그리기

확 바뀐 교정... "폐교 얘기 쏙 들어갔어요"

해마다 폐교 여부가 논의되는 보성지역 소규모 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교정 곳곳에 동심을 살린 벽화를 그리며 학교를 아름답게 변모시켜 학부모와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보성군 조성면 덕산리에 위치한 조성남초등학교(교장 신희섭) 전교생은 30명에 불과하다. 해마다 폐교 대상에 올라 그동안 시설투자가 미흡했고, 건물이 나 외벽 등 낡은 곳이 많았다.

이를 극복하고자 학교 측이 찾은 대안은 미술을 통한 환경변화였다.

새롭게 수립한 교육계획(22중 프로그램)중에서 '아늑한 보금자리 교육의 산실, 명품 교육환경 만들기'의 하나로 미술에 특기가 있는 이근희 교감의 재능기부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교정 곳곳의 외벽 환경을 아름답게 구상하고 꾸며보기로 했다.

우선 교문에서부터 통학로 양쪽으로 대형색채의 오색 바람개비 수십 개를 설치했다.

또 교정 화단에 단조롭게 채색된 12마리 조형동물의 색채도 전교생 대상 공모를 통해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탈피한 아

이들만의 독창적인 발상으로 바꿨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양과 색깔이 들어간 독창적인 도안을 선정하고, 전교생이 조를 편성해 색칠을 한 결과 산뜻하면서 생동감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됐다.

특히 학교 주출입구인 유치원과 급식실 외벽, 사택의 낡은 담장 위에 벽화를 그렸다. 다양한 동물들을 의인화해 회화적인 요소를 넣어 신나게 놀고 싶은 아이들의 순수한 이야기들과 아름다운 동심을 자극하는 내용을 담았다.

벽화작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우리가 구상하고 색칠해서 완성한 작품을 보니 바이킹을 타는 것보다 신이 나고, 마치 예쁜 색깔 옷을 입은 동물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나 우리랑 놀아줄 것 같다"며 "학교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뻐지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 역시 "규모는 작지만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학교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어, 보는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작은 학교 살리기와 인성교육에 특목히 한몫을 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구례 마산면 냉천마을

'조청 공방' 문 열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현실에서 농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한 소규모 농산물 가공공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례군은 최근 마산면 냉천마을에서 '냉천 조청 공방'(사진) 준공식을 가졌다.

마을 22개 농가는 기존에 직접 재배한 햅쌀과 길보리로 엮기름을 만들어 조청을 생산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알뜰알뜰으로 판매해왔으나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소규모 농산물 가공 창업사업의 하나로 조청공방을 열게 됐다.

마을 주민들은 냉천조청 영농조합법인(대표 심왕섭)을 조직해 200만~400만원씩 출자해 모은 1억원과 2014년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인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비 1억 원 등 총사업비 2억원으로 공방신축과 식품제조허가 등록을 마쳤다.

/구례=이성규기자 lsg@



복지센터에 올려뜨린 사랑의 하모니

곡성 삼강원 살림합창단이 최근 남원시 인월면에 위치한 노인복지센터 경예원에서 합창공연을 갖고 있다. 이번 공연은 2014년 전남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연나눔 사업' 일환으로 전라좌도농악과 색소폰 연주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곡성군 제공>

곡성 삼강원 살림합창단이 최근 남원시 인월면에 위치한 노인복지센터 경예원에서 합창공연을 갖고 있다. 이번 공연은 2014년 전남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연나눔 사업' 일환으로 전라좌도농악과 색소폰 연주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곡성군 제공>

보성녹차, 러시아 차시장 진출 기틀 마련

郡대표단 카자흐스탄 방문

차산업 문화교류 업무협약

보성군이 중앙아시아의 중심지인 카자흐스탄과 교류협력을 통해 세계 최대 차(茶) 소비 시장인 러시아 진출에 나선다.

보성군은 최근 카자흐스탄 알마티 기술대학, 고려인협회와 차 산업 문화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성군은 우리나라 선진 농업기술을 카자흐스탄에 전수하고 알마티 기술대학에서 진행중인 식품·의류 등 연구사업에 보성 녹차를 제공한다. 고려인협회에는 현지 고려인들이 한국의 전통 차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례문화와 녹차 등을 보급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중심지인 카자흐스탄과 문화 및 경제 교류 활성화를 꾀하고 세계 최대 차 소비

국인 러시아 차 수출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해 차시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용부 군수는 "고려인협회에 우리 전통문화를 전파하고 고려인들을 보성녹차 홍보대사로 육성해 카자흐스탄에 보성녹차를 널리 보급할 것"이라며 "카자흐스탄은 보성 녹차가 러시아 차 시장에 진입하는데 든든한 지지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곡성 옥과농협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곡성 옥과농협(조합장 박상철)은 지난 20일 농업인 행복나눔센터 2층에서 관내 농업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협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

'농협 이동상담실'은 농업인의 법률문제 상담과 소송지원 및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펼침으로써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고충처리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농협 이동상담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관동 팀장과 한국소비자원 일

육준 조정관과의 강의를 함께 개별상담으로 이어졌다.

박상철 조합장은 "농업인들은 방송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났지만 실제 전문가와 마주하며 상담을 하고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며 "농업인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법률과 소비자 문제에 대한 고충 해소를 위해 이동상담실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나주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가/무인텔

- 나주시 중앙동 1층 상가 대지 423㎡ 건물93.6㎡, 의류매장, 식당 성업 중. 매 5억9천만
- 나주시 송월동 나주역 앞 4층 무인텔 대지 1,152㎡, 객실 20, 관리실 2, 매29억

농지/임야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3,514㎡(대지, 임야 포함) 4차선 국도변 2층 주거지역 자연녹지 매5억 2천만
- 나주시 송월동 택지지구 대지 778㎡ 상업지역 4차선 도로변 나주시청 앞 매 8억8천만
- 나주시 관정동 전 7,547㎡ 매립지 2차선 도로변 농업지역 매 3억2천만
- 일부 유실수 식재) 매 1억 7천만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임야 6,774㎡ 나주호 입구, 선산 적합 매5천만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 소나무 양호, 수원원, 선산 적합, 매 30억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 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매 17억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전 26,450㎡ 대봉 김나무 과수원, 자경, 임대시 고소득 보장 매 4억

전원주택/상가/무인텔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전 2,305 주택2동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된 혁신도시 인근 전망최상 매4억
- 나주시 세지면 교산리 전(자주 임야) 20,495 임대수익약 호 3억7천만
- 나주시 공산면 동촌리 전 25,120 2차선 도로변 관리지역 투자유망 매5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4성급★ 호텔건물매매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커피숍은 휴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동

한국건설원 감정가 보다 20% 감액 매매 예정
· 매매가격 상담 후 결정
· 현장 답사 요망

목포시 대의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토지면적 3,478㎡(1,054평)/건축연면적 7,091㎡(2,149평)
연락처 010-9823-7781, 010-9868-5151

땅 매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0-32
답900평 생산녹지 나무식재가능

용자 2억 4천만원
매가 3억 6천만원
(중개 수수료 없음)

주인직매 010-8676-1900